

조합원님, 택시부제 해제는 택시규제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택시부제 해제로 시민 이동편의 증진, 택시 영업환경 개선 택시공급 여전히 부족해.. 승차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전국 대부분 지역의 택시부제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행률이 높아지면서 야간 택시 이용시민의 이동 편익이 크게 향상되었고 부제 해제로 피곤할 때 쉬고 손님이 있는 시간에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택시종사자의 영업환경도 개선되었습니다.

택시 부제는 40년전 유류파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구시대의 잘못된 규제로 전국 연합회와 16개 시도 조합은 부제 폐지의 당위성을 가지고 투쟁한 결과 힘겹게 부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택시에서는 사활을 걸고 부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제 해제에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운송수입 상승과 공급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택시 승차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제2의 카풀 사태나 타다 사태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내수 경기침체와 맞물려 예년과 달리 수요 감소 현상이 길어지는 등 택시산업의 채산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가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고급교통 수단임에도 그동안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과도하게 규제해온 탓입니다. 그러는 사이 시민들조차 택시요금을 대중교통요금과 동일시하여 저렴한 요금체계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택시종사자 소득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것이 단초가 되어 택시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노동력 이탈, 경영난 가중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세기만에 택시부제 해제, 규제 개혁 상징성 대단히 커 후속대책으로 택시요금 결정 권한, 이제는 업계에 맡겨야

택시규제 개혁으로서의 부제 해제는 자율영업 보장과 공급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승차 편의 증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부제 해제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당장 눈앞의 수익 감소에 연연하여 그 원인을 택시부제에서 찾고 업계 내부갈등을 부추겨 성과를 끌어내리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큼니다.

부제 해제를 첫걸음으로 향후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택시업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2의 규제 개혁'으로서의 '택시 기본운임·요금 자율화'에 보다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의 부제 재도입 주장은 규제를 개혁하고 자율경쟁하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택시 발전을 추진한 택시업계의 성과에 역행하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으로서 택시의 권익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9,000여 조합원 여러분! 개인택시 업계의 부단한 노력으로 쟁취한 택시 부제 해제는 우리의 살길임을 명심하시어, 또 다시 규제받지 않도록 전 조합원이 일심으로 단결하여 대응해 나아가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